

### 함평군-중국 덩펑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 신뢰 바탕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 협조 약속

함평군과 중국 허난성 덩펑시(河南省登封市)가 지난 21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가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홍양 덩펑시 상무 부시장, 안병호 함평군수, 양측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강홍양 부시장과 안 군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 교류 확대 ▲경제·무역·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 군수는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것들을 나눠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강홍양 부시장은 “함평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천혜의 고장”이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덩펑시와 함평의 조화로

운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인구정책담당 김선근 320-1551)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 신안군, 고추 병해충 증점 방제 당부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확산...전용약제 침투해야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의 발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고추포장에서 바이러스병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일명 ‘칼라병’이라고 부르는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보독한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해 옮겨져 피해가 발생하는 병으로 초기 방제가 미흡할 경우 빠르게 전 포장으로 감염된다.

감염된 식물체는 생장점과 신엽부분이 모두 검게 말라죽게 되며, 어린 고추는 검게 변하지만, 성숙한 과실은 얼룩덜룩한 무늬를 띄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꽃노랑총채벌레는 꽃 속의 암술, 수술 부분에 노란색을 띤 유충이나 성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주를 철저히 제거하고, 계통이 다른 2가지 이상 전용약



제를 꽃 속까지 약제가 침투하도록 번갈아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형선 소장은 “고추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추 터널을 벗긴 직후에는 반드시 꽃노랑총채벌레 전용약제로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술보급과 특화작목담당 장치연 240-4151)

/이민행 대표기자

### 신안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성료

#### 500여명 참여 철인3종 동호인 등 출전...경기 후 관광도 눈길



신안군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국한의 스포츠, ‘2018 신안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지난 20일 신안군 증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신안군이 주최하고 (사)대한철인3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해 처음 성공 개최 이후 전국대회로

승격되어 500여명의 철인3종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가 함께 출전했다.

참가선수 중 80%(400명)는 서울, 강원도, 부산 등 전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증도를 관광도 하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황금연휴기간 대회가 열려 ‘슬로시

티 보물찾기’ 축제와 증도 무료버스터미, 극단 ‘갯벌’의 마술쇼와 마당극 등으로 증도를 찾은 철인 동호인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었다.

특히, 최고령 선수 윤취우 씨(82세)부터 17세 주니어선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였다.

대회 시상품으로는 농어전정과 죽염, 꽃송이 등 신안 특산품이 지급되었으며 동호인 전체 1위를 차지한 이진홍 씨(42세)는 왕의 진상품인 귀한 민어전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은 교통이 다소 불편했지만 군 대표 관광지 슬로시티 증도에서 아름다운 우천해변과 한반도 해상승을 끼고 달리는 대회 코스는 전국 최고였다고 내년에도 꼭 참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길호 문화관광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굉장히 기쁘다”며, “부족한 교통망 구축 등 제반 여건을 잘 준비하여 내년에는 국제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한국 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서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관광정책담당 박상규 240-8355)

/이민행 대표기자

### 신안군, 해양선박사고 대응 안전한국훈련

#### 사고발생 초기대응·해상추락시 긴급구조 등 실제 상황 연출

신안군은 민·관·군 합동으로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1마일 해상에서 여객선 폭발·화재·침몰사고를 가정한 ‘2018 안전한국훈련 해양 선박사고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신안군과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였으며,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지역구조본부 가동과 긴급구조 지휘함을 선두로 구조지원에 함정 29척, 항공기 8대, 민간선박 20여척이 동원되었고, 훈련 참여인원이 1000여명으로 지자체 주관훈련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서 사고발생 초기대응을 시작으로 해상추락 승선원 긴급구조 및 실종자 수색으로 진행되었으며, 사고 상황은 압해 송공항 1마일 지점 해상에서 승객29명 선원26명 총 313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기관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침수가 진행되었으며, 60여명이 바다에 표류 중이고, 선내 250여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연출되었다.

지역구조본부 지휘로 해상에서 긴급구조가 진행되었으며 신안군은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구조가 종료되고 지역구조본부의 지휘권을 현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 대행 오재선)이 인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 아래 부상자를 응급의료소에서 응급처치 후 지정병원으로 후송, 사상자가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 100여명이 투입되어 환자이송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박종원 안전건설방재과장은 “훈련을 통해 민·관·군에서 사고 대응 협업 시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여, 향후 해양선박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매뉴얼에 따라 혼선 없는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안전관리담당 정태형 240-8478)

/이민행 대표기자

### 함평경찰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함평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지난 16일 오후 함평경찰서 3층 전지마루에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육성회 함평군지부와 합동으로 함평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모범청소년으로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정규열 서장은 “청소년이 잘 자라야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며,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성청소년계 경위 박형남 320-1248)/함평-임재상 대표기자

### 정규열 함평경찰서장, 노인대학 특강

정규열 함평경찰서장은 지난 25일 오전 함평군 노인대학 2층 대강당에서 노인대학 학생들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노인대상 범죄 예방법에 대하여 특강을 펼쳤다.

정규열 서장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영상 상을 통해 실종, 물품사기, 노인 학대 및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찰서는 강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지팡이, 효자손 등을 선물했다.(경사 이국현 320-1341)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 함평군, 함평천지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개최

#### 우승 해군3함대...공동 3위 군산시청·영암군청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야구협회가 주관한 ‘제5회 함평천지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가 지난 22일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펼쳐졌으며, 전국 각지의 경찰, 군인, 소방, 행정관청 공무원 야구팀 28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본선에서는 해군3함대 ‘네이비트리톤즈’팀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산포돌이’팀을 4대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군산시청 ‘드

림허브’팀과 영암군청 ‘氣-모아’팀이 차지했다.

박종범 함평군야구협회장은 폐회사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 없이 뽐내며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쳐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함평은 앞으로도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올 상반기에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남야구장의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 연장 운영

#### 농업기술센터, 영농철 맞아 7월 15일까지 영농편의 제공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농번기를 맞은 농업인에게 영농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내 본점에는 콩 파종기, 논두렁 제조기, 논두렁 조성기,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52종 161대를 구비하고 있다. 사전에 전화(☎320-2502)를 통해 임

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종별로 최대 3일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1천원~14만9천원이다.

박은하 영농지원과장은 “가을 농번기철에도(10월~11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장 본점 토요일 연장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